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770)

2021. 12. 17.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70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정진술 의원 발의(찬성 17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사용비용 지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사용비용 지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7조제1항 제9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10.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지원 사업) ① -----</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u>9의2.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u></p> <p>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나. 발달장애인 실종 현황

- 최근 5년간 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실종접수 현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는 연평균 약 8,200여 건이며, 이 중 찾지 못한 경우는 총 104건이고,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은 271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실종접수 현황 1)

								단위: 명/건
구분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비율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8,206,537	-
	접수	19,870	19,956	21,980	21,551	19,146	20,501	0.25%
	미발견	3	3	6	9	105	25	0.12%
	발견(사망)	22	24	24	30	21	24	0.12%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인구수	318,205	326,776	335,760	344,594	351,435	335,354	-
	접수	8,542	8,525	8,881	8,360	7,078	8,277	2.47%
	미발견	5	5	9	21	47	17	0.21%
	발견(사망)	39	46	47	47	47	45	0.55%
치매환자	인구수	545,750	624,772	712,974	799,411	632,827	663,147	-
	접수	9,869	10,308	12,131	12,479	12,272	11,412	1.72%
	미발견	6	6	3	3	9	5	0.05%
	발견(사망)	91	104	128	97	120	108	0.95%

- 또한, 최근 5년간 18세미만 아동의 인구수 대비 실종접수 비율은 0.25% 이지만, 발달장애인은 약 2.47%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발견 비율과 발견 시 사망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1) 출처 : 비마이너 기사, 2021. 2. 18. 「발달장애인 실종, 5년간 평균 8000건...아동 실종보다 10배 많아」

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관련 지원 현황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²⁾ 따라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제7조의2), 지문정보의 등록 및 관리(제7조의3),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제9조), 유전자 검사(제11조)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2022년도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깔창 지원 사업」이 다음과 같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출된 바 있음.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깔창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행동패턴 예측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스마트깔창 지원
- 신발 깔창에 있는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발달장애인 실종 초기에 조기 발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1.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 추진방법 : 사업참여 자치구 공모 및 선정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 실종 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스마트깔창 지원

○ 2022년 예산(안) : 390,000천원(시민참여예산)

- 스마트깔창 구입비(일반) 300천원*25개구*25명 = 187,500천원
- 스마트깔창 구입비(저소득) 300천원*25개구*15명 = 112,500천원
- 통신료 지원(저소득) 20천원*15명*12개월*25개구 = 90,000천원

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사용비용 지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와 장비 사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는 연평균 약 8,200여 건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 이후 미발견 비율과 발견 시 사망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발달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류민국 입법조사관 (02-2180-8140)

□ 참고자료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관련 언론 보도(국민일보, 2021.6.15.)

송파구 '스마트 깔창' 발달장애인 실종 막았다

| 스마트인솔, GPS 기능 탑재로 위치추적 가능...올해 25명 첫 보급, 만족도 높아 추가 지원

입력 : 2021-06-15 11:14 / 수정 : 2021-06-15 11:25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인솔

“스마트인솔’ 덕분에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 송파구 위례동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 A씨는 지난달 28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아들 이모(40세)씨가 재활치료센터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지하철을 잘못 타 하마터면 실종될 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씨는 구에서 지원한 스마트인솔을 넣은 신발 덕분에 위치추적이 가능했고 인근 지하철역에서 발견돼 실종을 예방할 수 있었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5월 관내 발달장애인 25명에게 ‘스마트인솔’을 처음으로 보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인솔’은 위치정보시스템(GPS)기능이 탑재된 신발 깔창이다. 신발을 신고 다니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위치가 보호자 휴대폰에 실시간 전송되고, 지정된 위치나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림 메시지도 보낸다. 기존의 팔찌, 목걸이 형태의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제품과는 달리 거부감이 적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구는 보호자들에게 별도의 교육도 실시했다. 이미 일부 발달장애인은 스마트인솔에 빠르게 적응해 보호자 없이 학교에 가고, 편의점에 심부름을 가는 등 사회 적응 훈련도 진행 중이라고 구는 밝혔다.

구는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하반기 5명에게 스마트인솔을 추가로 보급하고 사용자 의견을 제작업체에 전달해 기술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자립을 도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스마트인솔’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 시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